

중국, 소재산업 생산량 10% 감산

1999. 7. 3

중국 정부는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제전반의 디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철강, 시멘트, 판유리, 석탄 등 소재산업의 생산량을 10% 줄이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90년대 중반까지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시세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악화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자체평가에 따른 것으로 중국 정부는 우선 2000년말까지 시멘트 생산을 1억톤 감산한다는 목표로 수천개의 적자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5천만톤 줄어든 4억 8,60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강은 목표량을 전년대비 1,160만톤 줄어든 1억 400만톤으로 낮추고 판유리도 앞으로 2년간 전체 생산량의 8.7%에 해당하는 3천만케이스(1케이스=50톤)를 감산하며 석탄도 연말까지 2만 5,800개의 탄광을 폐쇄하고 연간 2억 5,0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쌍용, 노출광택 콘크리트 시판

1999. 7. 7

쌍용양회공업(주)은 두산건설과 공동으로 별도의 표면처리 없이도 대리석의 질감을 낼 수 있는 '노출광택 콘크리트'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콘크리트는 대리석의 질감을 낼 뿐만 아니라 색상이 밝고 오랫동안 광택을 유지해 별도의 마감재가 필요없는 것이 특징으로 최근 영종도 국제공항관제탑에 시험 시공된 바 있으며 지난 7월 1일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조관련 신기술로 인정받았다. 한편 쌍용측과 두산건설은 앞으로 5년간 이 제조기술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콘크리트 제조는 쌍용측이, 시공은 두산건설이 맡게 된다.

그린벨트 5억평 풀린다

1999. 7. 23

건설교통부는 전국 14개 그린벨트 중 최소한 3분의 1 정도인 5억 2,800만평이 그린벨트에서 풀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면해제 대상인 중소도시 7개 권역의 60%는 환경훼손과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생산녹지·공원 등으로 묶여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는다. 지난 '71년 제도가 도입된 후 지역 전체를 해제하기는 처음인 이번 제도개선으로 진주, 제주, 춘천, 여수, 통영, 전주, 청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 전체와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역의 15%가 해제되는데 전면해제 지역은 환경평가 검증과 도시계획 수립절차 및 지적도 고시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부분해제 지역은 내년 말에 각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나머지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 지역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일, 공장시설물 외벽을

환경친화형으로 새단장

1999. 8. 3

한일시멘트공업(주)은 최근 시멘트를 저장하는 싸이로 등 대형 시설물의 외벽을 환경친화적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일반적으로 시멘트가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인면서도 공해업종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일측은 거의 모든 공장이 완벽한 분진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설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꾸미는 작업을 통해 회사는 물론 업종 자체의 이미지를 점차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 GR 마크 획득

1999. 8. 23

고려시멘트제조(주)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슬래그시멘트를 GR(Good Recycle)마크 제품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79년 고려측이 개발한 슬래그시멘트는 '94년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뛰어난 '환경마크' 제품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GR마크는 품질이 우수한 제조상품에 주는 정부인증서이다. 슬래그시멘트는 제철소 선철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고로슬래그에 크링카와 석고를 혼합해 만든 제품으로 장기강도와 방수성이 뛰어나고, 수화열이 낮아 균열이 없는 등 친환경적이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대형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려측은 국내에서는 아직 슬래그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이번 GR마크 인증을 계기로 건설회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용, 균열방지용 '밸라이트시멘트' 각광

1999. 8. 25

쌍용양회공업(주)은 최근 양산에 들어간 균열방지용 밸라이트 시멘트를 대규모 건설공사에 적용, 품질을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올해초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LNG(액화천연가스)기지 공사의 지하 저장탱크 외부벽면에 이 제품을 공급해 성능을 인정받는데 이어 최근 저장탱크 본체에도 이 시멘트를 공급, 시공중이라고 밝혔다. 밸라이트 시멘트는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근본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대규모 토목, 건축구조물의 균열로 인한 누수를 막을 수 있다. 서울시와 대전시 지하철 건설본부도 이 제품이 지하철 공사시 발생하는 균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제품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특수콘크리트 주문생산

1999. 9. 13

한일시멘트공업(주)은 차별화를 통해 서비스질을 높인다는 방침아래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판매하는 주문형 특수콘크리트 생산에 착수, 본격판매에 나섰다. 이같은 한일측의 전략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수요가 서서히 살아나는 시장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전문화를 시도한 것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주문 판매기로 한 제품은 기존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비롯해 지하구조물, 댐, 해양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저발열 콘크리트, 노출광택 콘크리트 등 특수콘크리트 제품이다. 이를 위해 생산공장과 영업부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체제를 구축, 수요자들로부터 구조물의 용도와 현장의 특성에 맞는 콘크리트의 종류와 물리적 특성을 요구받는 즉시 이를 생산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위험도 대폭 개선

1999. 9. 16

미국의 민간경제연구소인 와튼계량경제연구소(W EFA)의 단기(1999~2000) 국가 위험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성장, 물가, 금리, 환율, 대외채무 등 12개 항목평가에서 한국은 평균 6점을 받아 아시아 12개국 평균치(5점)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인 이번 국가위험도 점수는 높을수록 위험도가 낮음을 뜻한다. 이번 평가에서 태국은 5점, 인도네시아는 3점을 받았으며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는 우리 나라와 같은 6점을 받았다. 항목별로 보면 경제성장이 지난 '98년달 3점에서 7점으로 높아진 것을 비롯해 금리, 노사관계, 기업가 신뢰, 사회안정, 정치안정 등 5개 항목에서 비교적 우수한 6점을 받았다.

내년 예산 92조 9,000억원

1999. 9. 22

정부는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 증가한 92조 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의 12조 9,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1조 5,000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 국민 1인당 72만원 씩 부담하게 된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86조 7,000억원으로 3.6% 증가하며 재정용자 특별회계는 6조 2,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 세입예산은 올해 대비 10.6% 늘어난 69조원이고 세외수입은 26% 줄어든 6조 2,000억원, 국채발행은 10.8% 줄어든 11조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은 새천년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요했던 실업대책 등 한시적인 재원은 대폭 줄이는 한편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국방·치안 등은 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적자 재정관리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폭발에도 견디는 콘크리트 개발

1999. 9. 30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부 교수가 지도하는 이 대학 건축재료 시공연구회는 “폭탄 투하시에도 파괴되지 않고 파괴되더라도 부서져 내리지 않는 방폭 콘크리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연구에 들어가 최근 완성한 이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압축강도는 1.6배, 휨강도는 4.3배나 높다. 이 연구팀은 「슬러지 침지 섬유보강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해 철강관을 얇게 썬 형태의 강섬유와 시멘트 페이스트(시멘트 물반죽)를 넣고 혼합할 경우 강섬유 비율이 1%만 넘어도 강섬유가 밤송이처럼 뭉치는 기존 콘크리트공법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한교수

는 “국가방위 시설과 비행기 격납고 등을 이 콘크리트로 지을 경우 전쟁시 피폭으로부터 내부장치나 시설,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 내년 13.9조원

1999. 10. 5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주택 채권발행 수입과 국채관리기금 등의 차입금으로 13조 9,659억원을 조성해 임대주택 12만가구, 분양주택 18만가구 등 총 30만가구의 국민주택 건설에 8조 9,598억원을 지원하고 차입금 상환 등에 5조 97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올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11조 140억원보다 26.8% 늘어난 것이며 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3조 9,811억원이 증액된 14조 9,951억원보다는 6.8%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소형 주택건설자금 중점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의 주거안정자금 확대지원,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의 지속추진 등을 고려해 이번 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시미즈사, 초고강도 콘크리트 고소 타설

1999. 10. 7

일본 시미즈 건설은 설계기준 강도가 1mm²당 60뉴턴(N)인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고소 타설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시미즈건설은 요코하마시에 건설되는 화력발전소내의 신1호기 발전소 본관 신축공사에 RC조 타워형 보일러 구조물로서, 높이 약 100m인 보일러의 전중량을 지탱하는 4분의 거대박스 벽기둥의 정상부를 구축했다고 밝혔는데 이 높이에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는 일본업계 최초로 주목을 끌고 있다. 시미즈건설은 타설을 위해 새로운 고

성능 AE감수제 및 저발열시멘트의 적용과 조합을 고안, 콘크리트가 건조하기 쉬운 혹서기에 최대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타설해도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고, 고밀도 배근 개소에도 균일하게 타설할 수 있는 슬럼프 플로어 60cm의 유동성이 있으며 피크시 수화열 온도를 섭씨 60도 정도로 억제할 수 있어 균열과 강도저하를 막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조합방법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내년 본격 회복

1999. 10. 8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지표 전망을 통해 올 건설투자는 4/4분기에도 5.9%가 감소해 연간기준으로 작년보다 8.8%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오는 2000년에는 민간의 설비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올보다 3.4%가 늘어 3년만에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외환위기의 여파로 전년도보다 10.2%가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건설투자가 내년에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건축허가면적, 건설수주금액 등 선행지표들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소주택업계 경영난 심화

1999. 10. 8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는 중소주택건설사들의 주택분양 실적이 연 2년째 감소하면서 업체들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형업체의 분양 아파트와 중소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 사이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대조되는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

화되자 사업에 나서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들은 총 3,368개사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97%에 해당하는 3,273개사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시장은 일부 대형업체 위주의 독점적인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감소세는 올해도 그대로 이어져 지난 9월말 현재 100여개사를 밀도는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내놓은 주택은 3만 520가구에 그치고 있어 최근 회복세를 감안하더라도 연간으로 지난해 수준에 도달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북한 상원시멘트, 내화벽돌 생산시작

1999. 10. 10

북한의 대표적인 시멘트생산업체 중의 하나인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는 내화벽돌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조업식을 가졌다고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는 고품질의 고회석(마그네슘을 추출하는 광물)을 발견하고 이를 원료로 하는 내화벽돌 생산공장을 4개월만에 건설했으며 내화벽돌 생산공장은 일반적으로 코크스를 사용하나 증유로 코크스를 대체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평양시 상원군에 위치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는 지난 '84년에 착공, 독일의 설립지원을 받아 '89년 4월 완공했으며 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생산하고 연간 생산량은 200만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중, 방글라데시 시멘트공장 수주

1999. 10. 11

한국중공업은 방글라데시에서 3,000만달러 규모의 시멘트공장을 턴키방식으로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발주처인 스칸셈 인

티내셔널 ANS사의 한스 프레데릭 부사장이 참석 한 가운데 연산 60만톤 규모의 시멘트공장 건설계약을 체결한 한중은 4만톤과 5천톤 규모의 크링카 및 시멘트 저장시설, 시간당 100톤의 크링카를 분쇄할 수 있는 그라인딩설비, 하역설비 등을 턴키방식으로 건설, 오는 2001년 3월 인도할 계획이다. 한중은 지난해와 올해 연산 260만톤 규모의 인도네시아 누산타라와 시비농 시멘트공장을 각각 준공했으며 현재 160만톤 규모의 말레이시아 페락 시멘트 공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다.

일본 시멘트업계, 시멘트 감산태세 강화
1999. 10. 18

일본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감산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시멘트 수요의 감소에 대응하여 住宇大阪사는 2000년 3월말에 田村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결정했으며 다른 각사도 키른의 휴지(休止) 및 공장의 2기 운전체제를 1기 운전체제로 전환하는 등 감산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97~'98년도에 큰폭으로 떨어진 수요는 금년에는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3년간 계속된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정세가 되어 왔으며 게다가 2000년도에도 회복전망이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각사는 생산체제의 근본적 수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면한 수급대책으로서 우선 감산을 강화하여, 금후의 키른 휴지(休止) 예정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생산능력은 금년도 말까지 전사(全社) 키른능력 9,560만톤에 대해 1,100만톤 이상인 12%가 감소할 전망이다.

SOC 민자 진입 '장벽' 여전
1999. 10. 28

정부가 민자를 유치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건설을 확대키로 했으나 관계법률 등 장벽이 높아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결과, 도로, 철도, 항만 등 정부가 정하는 34개 SOC시설물 건설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58건에 달한다. 정부가 민자고시하는 사업은 대형 항만, 고속도로 등 규모가 방대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다 민간기업이 제안하는 사업은 정부가 사업성을 검토하는데만 수개월씩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중·소규모 SOC사업들은 개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관련법률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 해외플랜트 사업강화
1999. 10. 29

현대시멘트(주)가 해외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특수시멘트사업을 강화해 수익구조를 크게 개선한다. 또 관계사 출자지분과 무수익자산을 단계적으로 처분, 부채비율을 연내 20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현대측은 시멘트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총 2억달러 규모의 해외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을 전개, 이르면 연내 시공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특수시멘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취득한 전기전도성 발열콘크리트와 특허 출원 중인 전자파 차단 콘크리트를 이용, 내년부터 고부가가치 신규사업에 적극 진출하기로 했다. 현대측은 또 출자지분 처분계획에 따라 성우기전에 대한 보유지분 50%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으며 투자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텔슨전자 주식(16.7%)이 200억원 이상 평가차익을 내고 있는만큼 이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양, '맞춤' 시멘트 생산
1999. 10. 30

동양시멘트(주)는 지난 5월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터 시멘트가 굳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초저발열 시멘트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맞춘 시멘트를 개발·공급하게 됐다. 동양측은 이번 초저발열 시멘트 맞춤형 생산을 계기로 기술력과 서비스정신을 결합해 앞으로 고객이 원하는 물성에 맞는 시멘트를 공급하는 「맞춤 시멘트 생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굳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일반 시멘트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제품으로 발열에 의한 균열을 억제해 한번에 대량 타설이 가능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초저발열 시멘트는 또 댐이나 교량과 같은 해양구조물의 부식원인이 되는 염소이온과 황산염 등 각종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쌍용, 부채비율 210%대 등 구조조정 결심
1999. 11. 12

쌍용양회공업(주)은 쌍용정유의 지분 28.4%와 경영권을 현금 1,000억원과 부채 8,000억원 양도 등 총 9,000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쌍용측의 정유 지분은 쌍용정유의 최대주주인 아람코사가, 공동경영권은 아람코, 프랑스 파리바은행, 쌍용정유의 해외법인 '쌍용인터내셔널' 등으로 이뤄진 합작법인 '메리웨더 컴퍼니'가 각각 인수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 9,000억원은 전액 쌍용양회의 부채상환에 사용될 예정으로 이로써 부채비율은 714%에서 210%대로 떨어지고 5,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올해중 부채비율을 100%대로 낮추기 위해 강원 용평리조트를 분사기로 하고 경영에 참여할 몇몇 업체와 접촉중이라고 말했다. 쌍용측은 이번 정유지분 매각으로 지난 2년간에 걸친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쌍용양회공업(주)을 중심으로 건설, 무역, 정보통신, 중공업, 보험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해 재도약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IMF 탈출은 2004년
1999. 11. 13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환경변화 및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의 경우 건설계약액은 민간부문의 완전한 회복세에 힘입어 55조 9,9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1.3% 늘어나겠으며 건설투자 규모도 78조 6,300억원에 달해 플러스 성장세(1.5%)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01년 이후 공사계약액은 연평균 8%, 건설투자액은 3~4%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시장회복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2004년의 공사계약 실적은 76조원대로 IMF직전 연도인 '97년의 74조 9,000여억원대를 넘어서 국내 건설시장이 IMF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3년만에 흑자시현
1999. 11. 23

올 상반기중 건설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3년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등 수익성이나 재무구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90개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중 재무제표를 분석한 '99년 상반기 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97년 -1.0%와 '98년 2.1%를 기록했던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상반기에는 0.1%의 미미하지만 흑자로 돌아서 IMF이후 적자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35.6%에 이르렀던 당기순이익 적자업체 비중이 30.5%로 감소했다. 그러나 10개중 3개업체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반기중 SOC투자가 집중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발주 물량의 한계로 건설업계의 일감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업계의 재무구조 개선도 경기회복 효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건설협회는 밝혔다.

쌍용, 인터넷, 특수시멘트사업 추진 1990. 11. 30

쌍용양회공업(주)이 새천년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 및 고부가가치 특수시멘트 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쌍용측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에 대비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진출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구체적인 사업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시멘트가격 정보를 제시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 거래선을 대상으로 수출협상을 벌여 내수경기 불황을 헤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사태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특수시멘트 시장이 급신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기존의 시멘트 판매만으로는 21세기 무한경쟁에서 버틸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이같은 사업전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시멘트업계, 보조연료로 페타이어 활용량 늘려 1999. 12. 3

시멘트업계가 연료비 절감 및 폐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페타이어를 주연료인 유연탄 보조연료로 앞다퉈 사용하고 있다. 쌍용양회공업(주)은 지난해 페타이어 420만개(개당 7kg)를 들여와 이를 유연탄 보조연료로 사용했는데 이어 올들어서는 740만개를 사용, 최근 2년동안 10억원 상당의 원재료비 절감효과를 봤으며 내년에는 페타이어 사용량을 900만개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기로 했다. 한일시멘트공업(주)도 9억 5,000만원을 투자해 페타이어

사용설비를 도입하고 지난해 15만개의 페타이어를 단양공장 소성로 가열연료로 활용하는데 이어 올들어서는 사용량을 30만개로 100% 늘렸다.

이와 함께 페타이어 수거가 원활할 경우 내년에는 사용량을 100만개로 늘리는 등 현재 0.4%에 그치고 있는 유연탄 대체율을 최대 10%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아세아시멘트공업(주)은 중장기 페타이어 활용방안에 따라 현재 이를 시험사용하고 있으며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공업(주) 등도 페타이어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가 페타이어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것은 보조연료로 쓸 경우 주연료인 유연탄을 사용할 때보다 연료비를 70% 가량 줄일 수 있는데다 정부시책인 폐자원 활용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협약으로 화석연료 사용 억제 바람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미지를 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 내년 항만 75% 조기 발주 1999. 12. 5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항만건설사업의 75%인 6천억원 규모 공사를 1/4분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내년도 주요 항만 건설사업 7천 822억원 규모중 75%인 5천 867억원 규모를 1/4분기에 발주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꾀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로 품질을 높이며 공사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발주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 80건의 항만공사중 250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방파제공사와 150억원 규모의 평택(아산)항 서부두 공사 등 54건의 공사가 1/4분기에 발주될 예정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6%대로 상향 전망
1999. 12. 10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9%에서 9.5~9.8%로, 내년도는 당초의 5.8%에서 6% 후반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환율하락을 감안해 2%대 후반으로 낮춰 잡기로 했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기존의 0.8%를 그대로 둘 예정이다. 내년도 성장률은 정부, 한국은행, 국책·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치중 사실상 최고치에 해당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저치다.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당초 123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봤으나 100억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고칠 계획이다. KDI 관계자는 "대우·투신사태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는데다 미국 경기상승 등 국외 여건도 양호한 상황이어서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조정키로 했다"며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투신문제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수준을 벗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년 SOC예산 70% 이상이 상반기중 집중투자
1999. 12. 12

건설교통부는 11일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이 내년 2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현행 5년인 국민주택 재당첨 기간 제한을 없애고 1가구 1통장에서 20세 이상 1인당 1통장으로 청약예·부금제를 바꾸는 방안이 올 12월이나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 문제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절차 등으로 인해 늦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중 또

는 늦어도 3월초부터 청약예·부금 가입자격 완화,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게 됐다. 또 늦어도 3월초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준 확대와 함께 청약예·부금 취급기관도 주택은행에서 농·수·축협을 포함한 모든 일반 시중은행으로 일괄 확대될 예정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4조 5,000억 원 가운데 70% 이상이 상반기중 집중 투자된다. 건교부는 청약기준 완화를 비롯한 각종 주택수요 확대장치가 내년에 본격 가동되면 부동산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건자재 수요, 5%선 증가
1999. 12. 13

11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0년 주요 건자재 수요전망」에 따르면 철근, 레미콘, 시멘트, 콘크리트파일 등의 내년 수요는 5%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시멘트 수요는 올해보다 4.3% 증가한 4,556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대형 토목사업이 부진한데다 건축경기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요회복을 위한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레미콘은 9,740만㎥로 올해보다 5.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수요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주택경기가 하반기에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근은 817만톤으로 시멘트나 레미콘에 비해 증가율이 훨씬 낮은 1.6%에 불과할 것이며 콘크리트파일은 아파트사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13.5%가 증가한 263만 3천톤에 달하고 토목부분의 투입비중이 높은 골재는 수요가 3% 증가한 1억 6,800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같은 건재수요는 그러나 잠실, 반포 등 수도권의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총선에 기인한 중소형 지역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 건재수요가 예상외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